

부평영아티스트 2020

BUPYEONG YOUNG ARTIST 2020

부평구문화재단은 올해 마지막 전시로 주목할 만한 신진 시각예술가들을 소개하는 전시 <부평영아티스트 5기 선정작가전 Inspiration>를 준비했습니다.

부평영아티스트는 가능성 있는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격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 역시 다양한 예술가들이 지원해 주셨고 30:1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남오일, 박지혜, 이웅철, 편대식, 한수지 총 5인의 작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술과 사회를 깊이 있게 바라보는 영민한 예술가들과 함께 전시를 개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평영아티스트 5기 선정작가들의 향후 행보와 성장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며,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써 전시장을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진 예술가들의 참신한 작품이 혼란과 어려움으로 가득했던 2020년을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산뜻한 영감을 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부평영아티스트’는 시각예술 분야의 괄목할 만한 신진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된 공모사업으로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5인의 신진작가에게 단체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단체전시 기간 중 최종 관람객 투표를 통해 선정된 POP Prize 수상작가 1인에게는 소정의 상금 수여 및 차기 년도 개인전 개최를 지원한다.

부평영아티스트 1부에서는 2018년 부평영아티스트 4기 POP Prize 수상자 정해민의 작가의 개인전 〈그림의 집 The house of the painting〉을 통해 그의 새로운 신작을 선보인다. 정해민은 그동안 자신이 선택한 사회적 쟁점을 지시하는 이미지들을 컴퓨터 통신망에서 다량 수집하여 편집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회화적으로 재생성하는 ‘디지털 페인팅Digital Painting’ 작업을 지속해 왔다. 〈2018 부평영아티스트 4기 선정작가전〉에서 선보였던 그의 작품이 한껏 과장된 폭력의 순간, 그 사이를 오가는 혼동과 긴장감을 담고 있었다면 이번 작품은 전 작품에서 소환된 이미지들 간의 모호한 조화로움 속에 새로운 이야기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관람객은 그가 재창조한 주제의 회화 앞에서 익숙한 이미지의 잔상을 더듬으며 작품 속 각각의 개체에 주목하고 그 속의 어떠한 서사가 담겨있는지 상상하게 된다. 42개의 캔버스로 이루어진 대형 디지털 이미지들의 증폭과 늘어짐은 때론 언캐니uncanny한 감정을 일으키지만 전작보다 심미화된 폭력의 형상들이 유희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관람객은 이번 전시를 통해 넘치며 유량하는 이미지들을 감각하는 방식, 동시대 회화에 대한 작가의 실험적 사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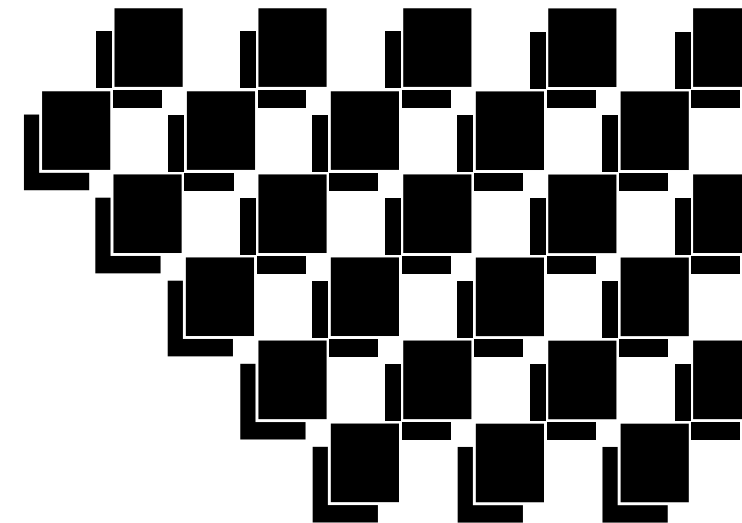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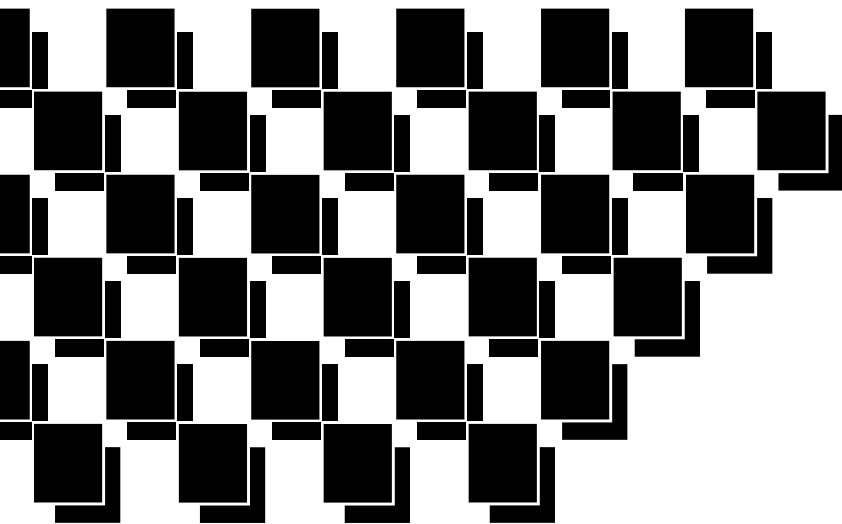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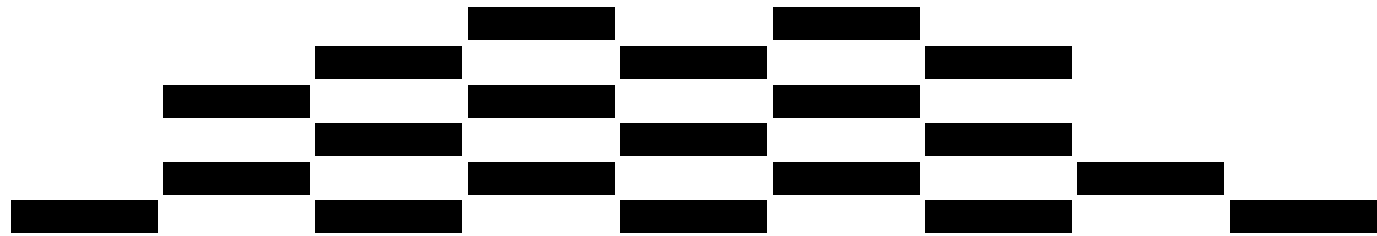
이어 부평영아티스트 2부에서는 〈5기 선정작가전 perennial inspiration〉이 진행된다. 올해 역시 전문심사위원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5인의 작가를 선정하였다. 선발된 남오일(b.1992), 박지혜(b.1987) 이웅철(b.1983) 편대식(b.1984), 한수지(b.1991)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개인 혹은 사회적 이슈를 독창적 시각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들의 작품은 각각 특정 도시의 풍경에서 파생된 탈 시간적 감각을 기록하고, 상징적인 사물과 언어를 통해 사회의 인식과 관습에 질문을 던지며, 팬데믹 상황에 놓인 현실에서 조각의 양식을 다시 주시하고, 노동과 시간이 축적된 수행적 회화를 통해 철학적 사유를 제안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부유하는 사적 데이터들의 생성과 소멸을 유희적으로 제시한다. 참여작가들의 관심사는 다소 넓게 퍼져있지만 구체적인 작업의 동기와 주목 대상은 그 자체로 동시대 예술과 사회를 다르게 혹은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전시는 5인의 신진작가들의 예술세계를 면면히 바라봄과 동시에 POP Prize 1인 수상자를 최종 확정하는 자리가 된다.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전들 속에서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모전이 갖는 특징은 관람객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데 있다. ‘관람객 투표’로 완성되는 해당 전시를 통해 관람객은 보다 주체적인 관람의 경험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1부

4기 POP Prize

정해민 개인전, 〈그림의 집〉

2020.8.4.-11.1.





정해민

1982년 출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

홍익대학교 관화과 학사

개인전

2018 <환상통화>, 갤러리175, 서울

2017 Could not complete your request), OCI미술관, 서울

그룹전

2018 <접경>, 예술의 전당, 의정부

<2018 겸재정선 내일의 작가 공모 수상자 전>,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아트레시피2>,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

2016 <제3회 의정부 예술의 전당 신진작가 공모>, 예술의 전당, 의정부

2015 <제1회 포트폴리오 박람회>, 서울예술재단, 서울

2014 <ARTKIST 입주작가>, 한국과학기술원 갤러리, 서울

2010 <동방의 요괴>, 하이서울 아트페어, 서울

2009 <각>,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수상

2016-10 2017 OCI YOUNG CREATIVES, OCI미술관, 서울

2016-6 제3회 의정부예술의전당 신진작가 공모 대상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

2015 제1회 포트폴리오 박람회 _서울예술재단 우수상, 서울

레지던시

2013-14 KIST 과학기술연구원 ARTKIST, 서울

2009 대인시장 레지던시, 광주

2009 독립문화공간 아지트, 부산

가벼운 미디어, 무거운 미디어

-디지털 이미지는 어디에 거주하는가

손부경 (미술 평론가)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팬데믹 시대를 마주하여 오늘날 문화 예술 생태계 역시 전례 없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지점 중 하나는 작품을 관람자에게 매개하는 일, 대표적으로 전시 관행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다. 물리적 공간에 기초한 예술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관습적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예술 실천과 체험은 어떻게 유지 혹은 변화될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예술 커뮤니케이션의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모색해 왔는데, 그 중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의 전시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미술관이나 갤러리는 온라인 관람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트 페어의 경우도 구매자가 원격으로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일종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시장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 밖에도 가상 현실 예술이 다시 부각되고 일찍이 온라인 전시 형식을 선취해온 구글 아트앤컬처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 또한 최근 미술계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전시가 기존 예술 체험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체로 예술 제도와 커뮤니케이션의 오래된 틀은 문제 삼지 않은 채 디지털과 물리적 공간 사이의 직접적인 변환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전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난점은 반대의 상황, 즉 인터넷 기반의 작품을 물리적 공간에서 매개하는 문제와 이어지면서 디지털 환경과 관습적인 예술 영역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끈다.

정해민의 디지털 회화(혹은 회화적 디지털 그래픽)는 기술적 이미지와 전통적인 회화 관행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문화적 현상과 연결된다. 그는 포토샵에서 그린 이미지를 캔버스천과 같은 물리적 표면위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데,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층위로 구분된다. 우선 이미지 생산의 측면에서, 그의 작업은 전적으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작가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영역에서 소비되는 각종 사건의 이미지를 수집한 다음, 디지털 페인팅과 소프트웨어적 재구성을 거쳐 특유의 목시록적인 가상 풍경을 조합해낸다. 여기서 그는 직접 구상적 형태를 그려내는 한편, 익명의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디지털 이미지를 처리할 때 발생하곤 하는 시각적 노이즈를 연출함으로써 픽셀과 벡터, 구상과 추상이 병치된 다층적인 화면을 완성시킨다. 그러나 이미지 매개의 측면에서는 반대로 물리적 표면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 그의 작업은 완성된 이미지 파일이 전시 가능한 형태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요소들, 이를 테면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쇄매체의 색 공간(color space) 차이, 적정 해상도, 인쇄 표면의 질감 등을 의미 작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한다. 말하자면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물리적 공간에서 매개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조건과 예술 관행 사이의 긴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작업 과정에 주목할 경우, 특히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그가 이미지를 그려내는 방식이 상당히 노동집약적이라는 점이다. 고해상도 이미지의 대형 출력을 염두에 두는 만큼 그는 매우 큰 크기의 템플릿, 즉 가상의 이미지 공간을 설정하고 그 공간을 세밀화를 그리듯 비교적 친숙한 크기의 형상들로 채워간다. 마치 대형 벽화를 부분부분 완성해가는 것처럼 전체 이미지는 모니터 화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시간의 섬세한 그리기를 거쳐 완성된다. 대략 그가 작업한 이미지의 픽셀 단위를 물리적 공간으로 환산하면 웬만한 갤러리 벽 한 면을 가득 채우는 크기이며, 만약 그가 전체 이미지를 일대일 크기로 조감하면서 작업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모니터 수십 대가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디지털 이미지 작업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흔히 물리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여겨지는 디지털 이미지의 성격과 상충하게 된다는 점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여기서 완성된 고해상도, 고용량의 원본 파일은

재생과 전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브제 중심의 예술 형식 보다 더 물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각종 기술적 오류, 노이즈, 발열이 생겨날 때 디지털 이면의 물질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유사한 맥락에서 새로운 미디어와 전통적인 기법의 논리가 결합될 때 나타나는 부조화는 디지털 이미지 이면에 놓인 기술적 규약과 조건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디지털 페인팅의 영역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대한 관습적인 태도(친숙한 도구, 테크닉, 구도, 비율, 크기 등), 그리고 기술적 제약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된다는 점을 가리킨다.

〈그림의 집(The House of Painting)〉은 그동안의 작업 방식과 화두를 잇는 동시에 새로운 전략과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우선, 전시 제목에서도 엿보이듯이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이전에 비해 서사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요청한 사항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Could not Complete Your Request)〉나 〈환상통화(Phantom Painting)〉와 같은 이전 전시의 제목이 공통적으로 매체에 대한 고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면, 〈그림의 집〉은 보다 구체적인 맥락과 대상에 집중한다는 인상을 준다.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림의 집〉은 작가 주변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집에 얹혀 있는 사회적 욕망, 소유, 계급의 풍경, 그리고 그 속에 놓인 그림과 개인의 모습을 제시한다. 약 십여 년 전 디지털 페인팅을 고안한 이후, 그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폭력, 종교, 전쟁의 이미지가 뒤섞인 일종의 아카이브와 같은 장면을 구축해왔다. 이번 작품은 그 아카이브에서 특정 소재를 다루는데 필요한 일부만을 발췌하여 재배치한 것처럼 보인다. 추상과 구상, 회화적 표현과 컴퓨터 그래픽스 효과가 혼재된 화면 속에서 명확한 정보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지만, 몇몇 건축적 요소와 인테리어 사물들을 통해 이것이 기본적으로 집과 계층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면에 대한 해석과 별개로 여기서 돋보이는 부분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다. 디지털 작업의 특성상 그의 작업에서 전체 풍경을 구성하는 개별 모티프들은 독립성을 띤 모듈 단위로서 서로 호환 가능하고 다양한 판본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작품 내 몇몇 모티프들은 이전 작품에서 추출되며, 다시 다음 작품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미술사에서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피터 브뤼겔(Pieter Bruegel the Elder)이 유사한 화면 구성을 즐겨 사용한 바 있다. 브뤼겔의 작품은 다양한 사건의 파노라마로 이루어진 풍경을 보여주는데, 이때 개별 상황은 독립적인 의미를 지닌 단위로서 다른 작품에 다시 등장하곤 한다. 포토샵 작업의 경우 유희와 달리 미디어 수준에서 이미 구조-모듈의 관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디지털 페인팅은 기본적으로 전체 이미지와 이미지 단위 사이의 유연한 이동을 전제로 한다. 작가의 이번 작업은 이전에 비해 그 관계를 더 부각시키는 것으로 전체와 부분, 아카이브와 개체, 장기적 기획과 개별 전시간의 연결고리를 하나의 방법론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몇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작업 논리가 전시 공간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변화로서 그는 디지털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전시되는 형태를 이전과는 다소 다른 방향에서 제시한다. 일단 표면적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된 작품들은 이전에 비해 보다 기술적으로 완성된 회화 형식에 가까워진 모습이다. 기존의 작업에서 인쇄된 흔적과 표면이 지닌 물질적 특징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다면(혹은 앓았다면), 〈그림의 집〉은 제작상의 절차가 매끄럽게 봉합된 최종 형태에 힘을 싣고 있다. 전자가 디지털과 인쇄 매체의 차이를 굳이 감추지 않는데 반해, 후자는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본 자체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단편적으로 작품의 전시가치와 교환가치를 강조

하는 움직임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작업과 연결시켜 볼 때 그보다는 디지털 이미지가 얼마나 더 물리적 표면으로 잘 전환될 수 있는지 그 극단을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읽을 수 있다. 그의 작업 아래에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입자가 촘촘하고 뻘뻘할수록 더 물질적인가라는 오래된 물음이 자리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그림의 집〉은 이전보다 더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더 높은 밀도의 캔버스표면 위에 옮길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실제로 그는 해상도의 변화와 감각적 사실성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보다 촘촘한 이미지를 다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스를 업그레이드해왔다. 그러나 기술적 재현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사실적인 이미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변화하기 때문에 사실상 촘촘함과 물질성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가 만든 이미지는 언제나 “무겁다.” 보기에 따라서는 바로 이 부분, 즉 기술적 업데이트가 사실상 현상유지로 귀결되는 지점에서 디지털 이미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물질적 조건, 디지털 이미지의 물질성이 더 잘 관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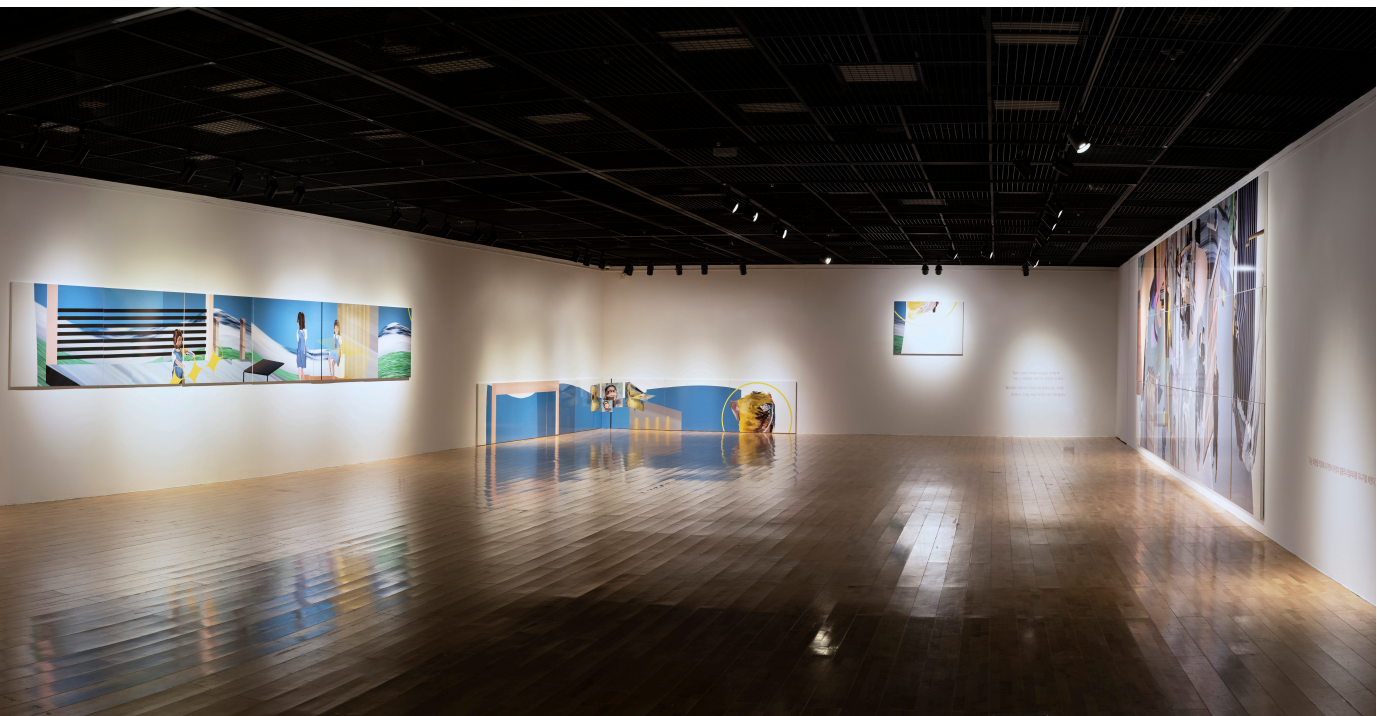
1997년 독일 카셀에서 열린 제10회 도큐멘타(Documenta X)는 넷아트(Net Art)를 현대미술의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던 첫번째 시도로 기억된다. 도큐멘타측은 넷아트 전시를 위해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그 안에 배치된 여러 대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참여 작가들은 즉각적으로 이런 전시 형태가 넷아트의 기본 전제와 상충한다는 이유로 반발했고, 넷아트의 합당한 전시 형태를 둘러싼 당시의 논쟁은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작품을 물리적 공간에서 매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참조지점으로 남아있다. 살펴보았듯이, 정해민의 작업은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이미지를 제시할 뿐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 자체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물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가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이미지를 물질적으로 전환시킬 때 마주하는 문제들은 디지털에 친숙해질수록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된 영역을 다시 비춰준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이미지의 물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주목했다고 밝히면서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것 같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성공여부를 떠나 분명한 것은 그의 작업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전시되는 과정을 향해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디지털 이미지가 여전히 물질적 환경(기술적 제약, 문화적 습관, 전시 형태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림 속의 집, 그 집 속의 그림이 가리키는 재귀적 관계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지가 거주하는 두 공간, 또는 이미지가 거주해온 공간과 새로운 거주지가 된 공간, 디지털과 현실 공간 사이의 차이와 전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 ↑ 그림의 집_2층 House of Painting_2F, 2020.
캔버스에 디지털 프린팅, 282x889cm

↑ 그림의 집_1층 House of Painting_1F, 2020.
캔버스에 디지털 프린팅, 282x889cm







노란 자화상 Yellow self-portrait, 2020
캔버스에 디지털 프린팅, 239x215cm



2부

5기 선정작가전

2020.11.19.-12.8.

부평구문화재단 영아티스트 5기 심사평

정현 (미술비평, 인하대 교수)

동시대 미술은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속도의 향상만큼이나 사회적 시간의 영향을 실시간으로 받는 현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이 같은 미술 현장의 급진적 변화는 한편으론 속도에 비례하여 성장 주기를 맞춰야 한다는 암묵적 요구와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미술현장 고유의 유기적·자율적 성장에 대한 비판이 대립하고 있다. 미술 지형도의 변화는 공공지원사업 등 곧바로 정책에 반영되어 기관과 현장 사이의 상호작용이 전에 없이 활성화된 즈음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은 과거 작가, 전시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미술 현장을 책임지는 다양한 주체의 요구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코로나 19사태의 여파로 인하여 물리적 기반에 의지하는 전시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한계가 두드러졌다. 이렇듯 정책과 재난의 이중주로 인하여 신인과 중견 사이의 작가들은 전시 기회, 지원 가능한 공모의 제한으로 이어졌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부평구문화재단 영아티스트 공모전은 미술 현장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 속에서 수도권 서부라는 지리적 위상을 바탕으로 서울-김포-인천-경기를 잇는 지역적 계열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3배가량 높은 지원율을 보였는데, 정확한 이유는 꼼꼼한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유는 무엇보다 신진작가를 정의하는 나이와 전시 경력과 같은 정량적 기준을 유연하게 제안한 점에 있는 듯하다. 신진작가란 용어는 보편화 되었지만, 막상 그 기준은 사업을 주최하는 해당 기관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는 개념이다. 오늘날 신진작가를 정의하는 개념을 일률적으로 통일할 수는 없다. 그만큼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적으로 이미 변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평아트센터가 제안한 신진작가의 기준은 과거 부상하는 작가(emerging artists)라는 용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모호한 신진작가보다 “주목할만한 작가”와 같이 차별화된 부제를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동시대 미술은 점점 더 빠르게 비물질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작가에게 바라는 것은 새로운 시각, 시대를 읽는 날카로운 시선과 어떻게 사유를 실천하는가에 있다.

본 공모는 공통의 주제나 쟁점을 중심으로 설계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2차 심사에 올라온 작가들의 작업을 통하여 동시대 미술현장의 흐름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엔 부족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작업의 주제나 동기가 미시적이고 매우 개별적인 차원에서 발현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의 동시대 미술이 관습적으로 주어진 주제, 이데올로기, 쟁점 등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은 이른바 포스트 인터넷 시대라는 매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비록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팬데믹 상황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을 온라인에서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가 공유하는 기억,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풀어낸 작업처럼 거칠지만 그래서 더 살아있는 감각과 감정을 드러낸 작가의 도전하는 모습은 꽤 인상적이었다. 올해는 유독 한국화 기반의 작가 수가 많았으며 매체적으로는 회화, 설치, 미디어, 영상 등 평균적인 동시대 미술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미투 문화의 영향으로 젠더 페미니즘 이념을 바탕으로 둔 작업도 눈길을 끌었다. 뉴트로 문화로 불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시도도 적지 않게 포착되었다. 포스트 인터넷이란 개념은 인터넷 환경에 의한 전방위적 영향을 보여주는데, 과거로의 시간이동은 단순한 향수에 그치지 않고 성장 이데올로기의 동력이 사라지자 아직 꿈과 낭만이 허락된 시간을 되찾으려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올해 선정된 5인의 작가, 남오일, 박지혜, 이웅철, 편대식, 한수지 (가나다 순)는 각자의 위

치에서 현실을 바라보되 특정한 경향의 매체나 방식을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작업 방식을 발전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남오일은 서울이란 지역을 낮은 시선으로 포착한다. 지방 출신인 작가는 흑백 필름을 사용해 서울의 노인, 노숙자를 피사체로 담는다. 전형적인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를 그대로 차용해 대상과 장소를 기호학적으로 읽을 수 있는 사진을 생산한다. 어쩌면 이번 전시에 부평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관한 사진을 기대해 봐도 좋겠다. 박지혜는 다양성을 허락하지 않는 낯았지만 여전히 인식체계에 영향을 주는 관습에서 벗어나 있는 개인의 삶을 주목한다. 작업의 동기는 표준의 사고체제가 여전히 개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부터다. 그렇게 작가는 동시대에 내재한 표준의 흔적을 추적하는데, 이 과정은 상당히 연극적인 설치 작업으로 제시된다. 이웅철은 조각의 동시대성을 질문한다. 3D프린터와 오더메이드 환경이 발전하면서 동시대 조각가들은 조각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일방통행로의 끝에서 작가는 블루스크린 방식을 이용하여 기술, 노동, 재현과 표현 너머의 조각은 과연 무엇인가를 관객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험할 예정이다. 실제로는 전시장에 조각의 영상이 투사될 예정인데, 과연 이 실험이 얼마나 유효한 담론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편대식은 잘 다듬은 목판 위에 연필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넘게 선을 긋는 단순한 행위를 반복하여 의외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작가는 작업과정을 시간이 누적되는 것으로 보았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지나간 시간이 모두에게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작가는 수행에 가까운 행위를 통하여 시간의 의미를 되묻는다. 나아가 사회적 시간을 해체하고 비의미로서의 시간 자체를 들여다보라고 속삭인다. 한수지는 인터넷 환경에 의하여 주어진 세계를 해체하여 그 비물질적 세계의 구조를 보여주고자 한다. 표면적인 세련미와 발랄한 색채에 비하여 그의 작업은 근미래의 디스토피아를 예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관 기저에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란 가느다란 희망이 숨어 있을 것 같다.

부평구문화재단 영아티스트 공모전 최종 지원 작가는 관객과 심사위원의 투표로 결정된다고 한다. 부평시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위상을 가진다는 점은 본 사업의 취지와 철학을 방증한다. 아무래도 코로나 19 여파로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적 삶의 제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시는 계속될 것이고, 전시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과 연구가 이어질 것이다. 관습에서 벗어나 다른 존재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랜 예술의 역할이었다. 이제부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지구 생태와 미래를 염두한 윤리적 전시 미학이 요구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문화재단 영아티스트 공모전에 참여한 작가와 부평문화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남오일, 〈Dongjak—gu, Seoul 2018〉, 2018, 피그먼트 프린트, 38.5x51cm
 ↑↑ 남오일, 〈Yongsan—gu, Seoul 2017〉, 2017, 피그먼트 프린트, 38.5x51cm
 ↑ 남오일, 〈Seocho—gu, Seoul 2018〉, 2018, 피그먼트 프린트, 38.5x51cm

남오일

1992년 출생

서울예술대학교 디자인학부 사진전공 졸업

개인전

2019 〈Seoul, 觀光〉, 갤러리 AG, 서울

2019 〈On the road, Seoul〉, KBS시청자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20 〈을지아트페어〉, 을지트윈타워, 서울

2019 〈실재의부재〉,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서울

2018 〈MIX & MATCH vol. 2〉, 아미미술관, 당진

2018 〈송건호 대학사진상 수상작품전〉 갤러리초아, 수원

2018 〈제 5회 송건호 대학 사진상 展〉, 갤러리이즈, 서울

2016 〈내 손안에 서울 시민작가 사진전 “청년, 서울을 답다”〉, 서울시민청, 서울

수상 및 선정

2020 부평영아티스트 선정작가, 부평구문화재단

2020 서울문화재단 0(YOUNG) 아티스트, 서울문화재단

2019 AG 순수사진예술 신인상, 안국문화재단

2018 제 5회 송건호 대학사진상, 한겨레신문

소장

안국문화재단



↑↑↑ 남오일, 〈Yongsan-gu, Seoul 2017〉, 2017, 피그먼트 프린트, 38.5x51cm
 ↑↑ 남오일, 〈Jung-gu, Seoul 2019〉, 2019, 피그먼트 프린트, 38.5x51cm
 ↑ 남오일, 〈Yeongdeungpo-gu, Seoul 2018〉, 2018, 피그먼트 프린트, 38.5x51cm



↑↑↑ 남오일, 〈Seocho-gu, Seoul 2018〉, 2018, 피그먼트 프린트, 38.5x51cm
 ↑↑ 남오일, 〈Mapo-gu, Seoul 2019〉, 2019, 피그먼트 프린트, 38.5x51cm
 ↑ 남오일, 〈Yongsan-gu, Seoul 2017〉, 2017, 피그먼트 프린트, 38.5x51cm



↑↑↑ 남오일, 〈Guro-gu, Seoul 2019〉, 2019, 피그먼트 프린트, 38.5x51cm
 ↑↑ 남오일, 〈Gwangjin-gu, Seoul 2020〉, 2020, 피그먼트 프린트, 38.5x51cm
 ↑ 남오일, 〈Dongdaemun-gu, Seoul 2020〉, 2020, 피그먼트 프린트, 38.5x51cm



↑↑ 남오일, 〈Gwangjin-gu, Seoul 2020〉, 2020, 피그먼트 프린트, 38.5x51cm
 ↑ 남오일, 〈Yongsan-gu, Seoul 2020〉, 2020, 피그먼트 프린트, 38.5x51cm



박지혜

1987년 출생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입체조형 전공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19 〈영광의 상처를 찾아〉, 송은아트큐브, 서울

2018 〈평범한 실패〉, 갤러리 조선, 서울

2017 〈between flip turns〉, out sight, 서울

2017 〈NO ONE IN CHARGE〉,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777갤러리, 경기도 양주

2015 〈홀리홀리홀〉, gallery175, 서울

2014 〈붉은방〉, 유중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20 〈텍스트, 콘텍스트가 되다〉, 의정부미술도서관, 경기도 의정부

2020 〈아티스트로 살아가기〉, 세화미술관, 서울

2019 〈MINUS HOURS〉, 우민아트센터, 충북 청주

2018 〈다층의 기록〉,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경기도 양주

2017 〈항시적 긴장상태〉, 공간 형, 서울

2016 〈공감오류; 기꺼운 만남〉,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레지던시

2019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15기 입주작가

2017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 99℃ 시각예술분야 선정

2016 아트스페이스풀 신진작가지원프로그램 POOLAP 선정

2016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777레지던스 2기 입주작가





↑ ⇒ 박지혜, 〈home sweet home〉, 2019.
OSB, 목봉, 물고기밥 타이머, LED 조명, 소금, 가변설치





이웅철

1983년 출생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졸업

국민대학교 입체미술과 졸업

개인전

2020 <섬 속의 섬>, 경기만 에코뮤지엄 『면,사무소』, 안산

2018 <안무; 드로잉과 설계 사이(기획: 양은혜)>, 플랫폼-엘, 서울

주요 단체전

2020 <선감비닐하우스>, 선감어촌마을 비닐하우스, 안산

2020 <서울평화문화축제>, 평화문화진지, 서울

2019 <네이처프로젝트>,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서울

2019 <유령걸음>,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8 <한강건축상상전-한강맞이>, 문화비축기지, 서울

2018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17 <경기아트프리즘>,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7 <페차쿠차 링크업 프로젝트>, 아트스페이스 테트라, 후쿠오카

소장

경기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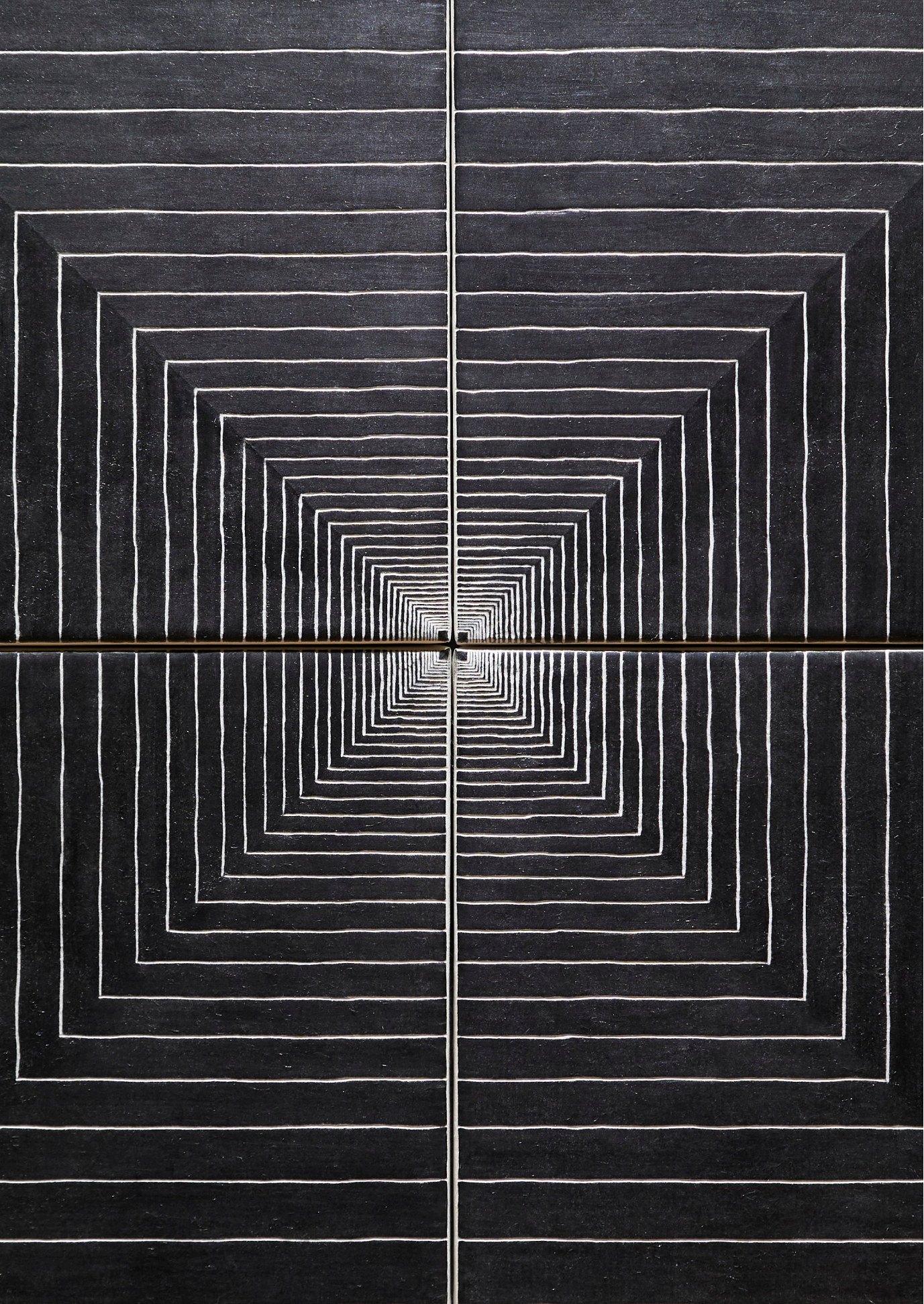
레지던시

2019~2021 경기창작센터, 안산



↑ ⇒ 이웅철, 《유령조각 연작》, 2020,
PLA에 유채, 가변크기.





편대식

1984년 출생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조형학과 조형문화예술 전공 졸업

고려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학과 졸업

개인전

2020 <ENCOUNTER>, 홍티아트센터, 부산

2017 <A Series of Moments; 순간의 연속>, (재)한원미술관, 서울

2016 <퀵팁점프: EXISTENCE>,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5 <ENGRAVE>, 스페이스 선+, 서울

2014 <ILLUSION>, 하슬라미술관, 강릉

주요 단체전

2019 <현기증>, 성북예술창작터, 서울

2019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

2019 <퇴적된 유령들>,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청주

2019 <공존>, 오산시립미술관, 오산

2018 <미니멀 변주>, 서울대미술관, 서울

2018 <DEERUPT ARTCON>, ADIDAS BASECAMP 107, 서울

2017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JCC아트센터, 서울

2017 <선으로>, 내셔널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인제

2017 <제 2회 뉴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

2016 <생생화화 - 열네 개의 시선>, 고양아람누리미술관, 고양

2016 <ART NOVA 100>, Beijing 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Centre, 베이징

2016 <THE KITCHEN : 2015 경기창작센터 그룹전>,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6 <Contact Chatter>,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전시장, 서울

2015 <퀵팁점프: 경기창작센터 청년작가전>, 경기도미술관, 안산

레지던시

2020 홍티아트센터

2015~2016 경기창작센터

수상 및 지원

2020 부평영아티스트, 부평문화재단

2019 아트아시아 설치 부문 선정, 아트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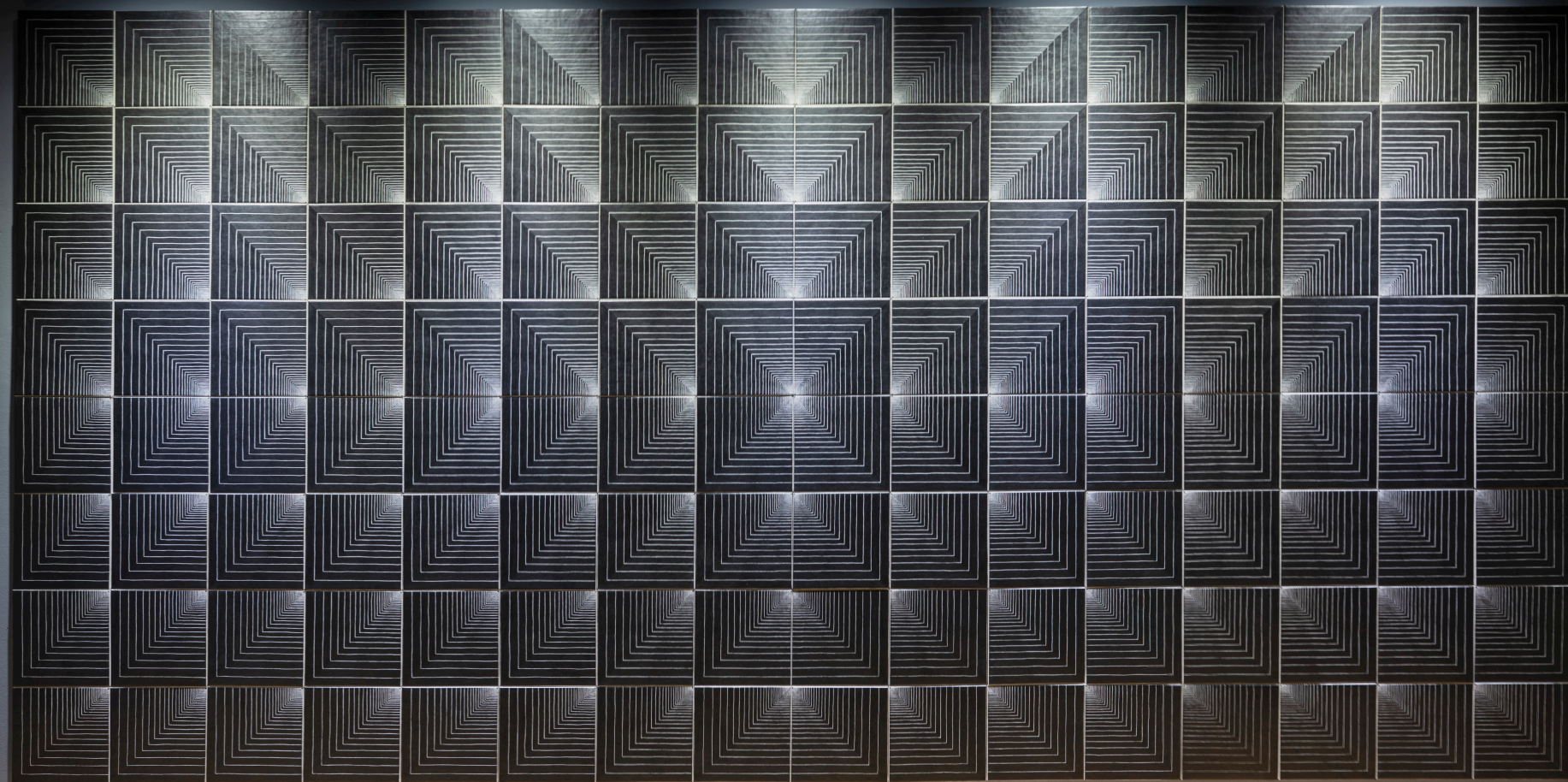
2019 성북 N 작가 공모, 성북문화재단

2016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 신진, 경기문화재단

2015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아트인포스트

소장처

강북삼성병원/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서울시립미술관/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재)한원미술관



Pyun Dae-sik, 'Untitled(cell)', 2016



↑ 편대식, 〈Black Lead Mirror〉, 2020.
나무패널에 연필, 244x122cm

⇒ 편대식, 〈35,975,094,960m의 거리〉, 2020.
cctv, 모니터, 가변크기



한수지

1991년 출생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조소전공 졸업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전공 졸업

가천대학교 조소전공 졸업

개인전

2020 <Welcome to Flattened Flat Space>, Freedman Gallery, 리딩, 펜실베이니아, 미국

2018 <Flattened Flat, Here, Being Us>, Deep Space Gallery, 온라인 전시

2016 <Synthroid Tab. 0.1&0.05mg>, 레인보우큐브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20 <com uma pedra atrás da orelha>, Alfaiataria, Curitiba, Paraná, 브라질 (예정)

2020 <뉴미디어초청전: 뒷산에 사는 괴물- '같이'사는 것에 대하여>, NEMAF 탈영역 우정국, 서울

2019 <동시에 엄청난 보호색>, 용산구 보광동+인터넷, 서울

2019 <Title of Show>, Sol Koffler Gallery, 프로비던스, 로드아일랜드, 미국

2019 <Art Teleported Brooklyn NY 2019>, 100 Bogart St(CICA Museum), 브루클린, 뉴욕, 미국

2019 <In Close Proximity>, 82 Weybosset St, 프로비던스, 로드아일랜드, 미국

2019 <Discover 2018; A Conversation Between Art and Science>, 브라운대학교, 프로비던스, 로드아일랜드, 미국

2017 <9와3/4 승강장>, 스페이스 M, 서울

2016 <제 3회 고!고! 메타몽 운동회>, 행화당, 서울

2016 <제 2회 고!고! 메타몽 운동회>, 탈영역 우정국, 서울

2016 <제 1회 고!고! 메타몽 운동회>, 이태원 79-61 옥상, 서울

2016 <미탐전>, K.C.A.A, 상암 DMC 갤러리, 서울

2015 <Fromnow>, 성남아트센터, 성남

2015 <헛짓거리>, 갤러리 정다방 프로젝트, 서울

2014 <제4회 공장미술제>, 문화역 서울 284, 서울

레지던시

2019 Arteles Creative Center, Haukijärvi, 핀란드

2019 Vermont Studio Center, 존슨, 버몬트,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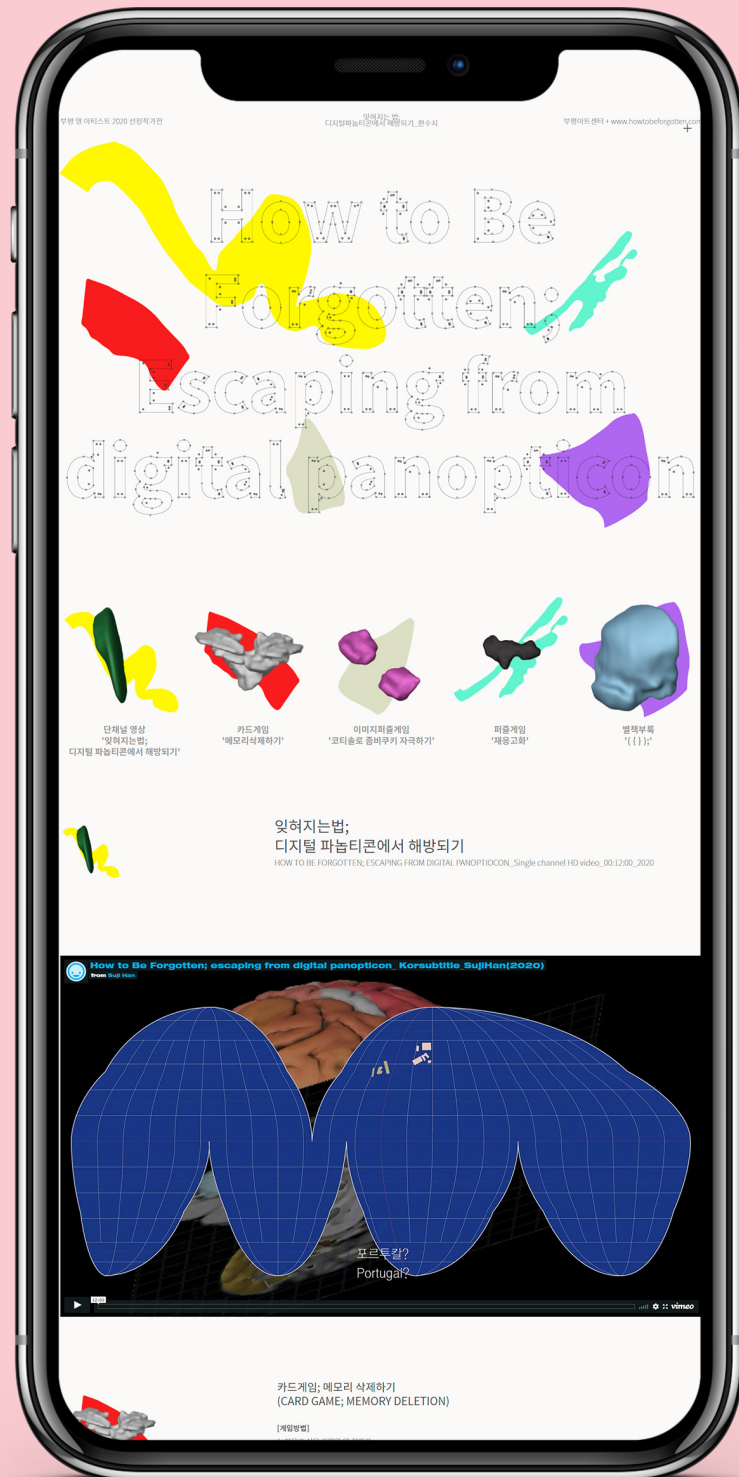
기금/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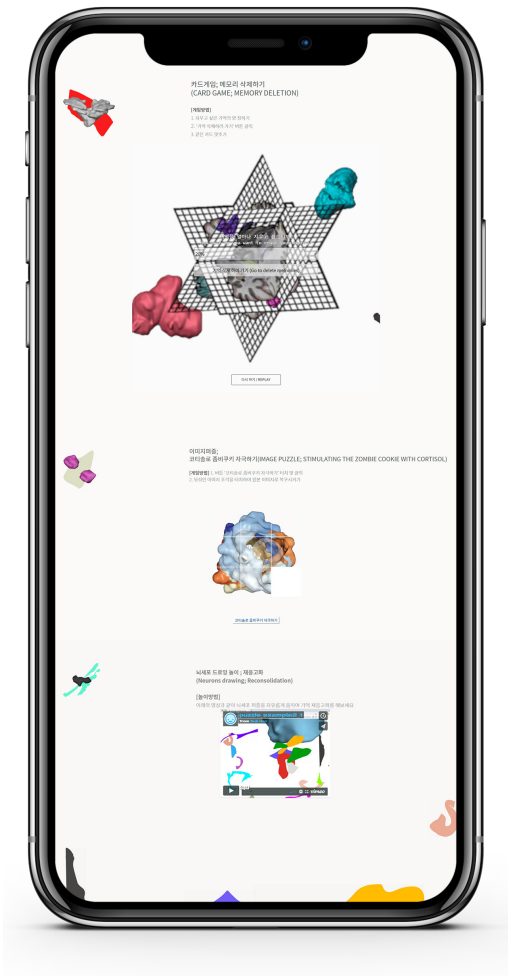
2019 Arteles Creative Center Grant, Arteles Creative Center, Haukijärvi, 핀란드

2019 VSC Artist's Grant, Vermont Studio Center, 존슨, 버몬트, 미국

2016 청년허브, 청년잡, 서울,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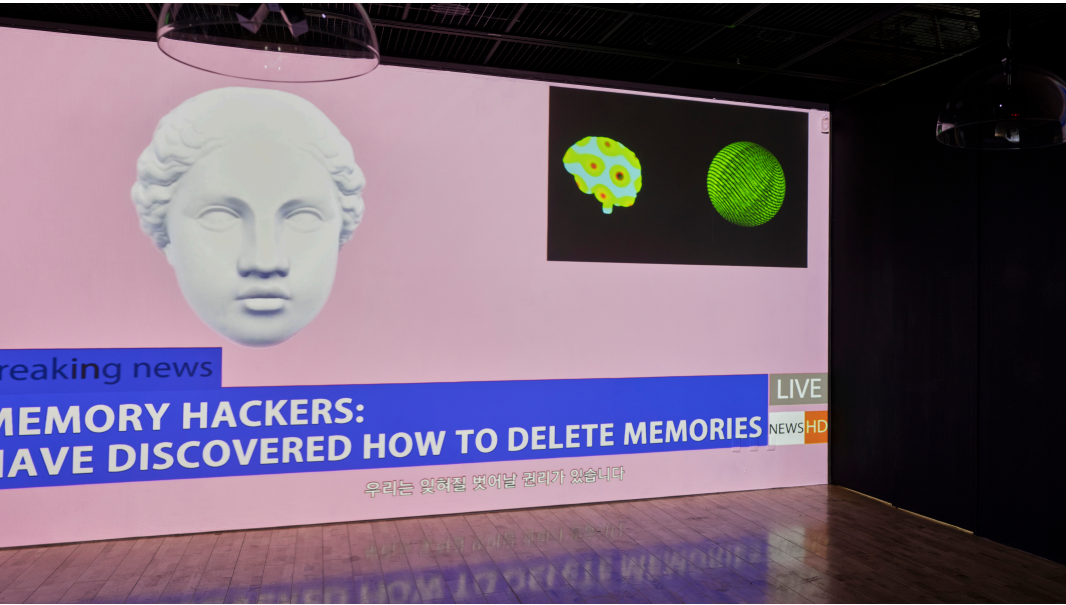
2016 청년실험프로젝트, 경기문화재단,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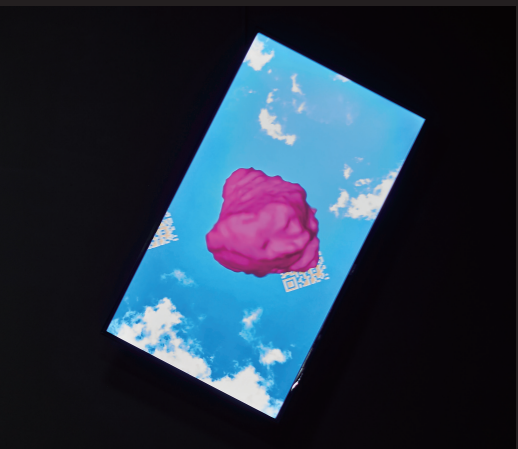
⇐ 한수지, 〈잊혀지는 법: 터미널- 제 3차 기억 공간으로〉, 2020.
무빙 포스터, QR코드, 00min,22sec

⇑ 한수지, 〈잊혀지는 법: 가중치 변경〉, 2020.
웹 설치, Html/CSS/JS, JavaScript 게임, e-book



한수지, 〈잊혀지는법: 디지털 파네텍콘에서 해방되기〉, 2020.
HD 비디오, 12min,00sec









부평영아티스트 2020
Bupyeong Young Artist 2020

1부

4기 POP Prize 정해민 개인전-그림의 집
2020.8.4.-11.1.

2부

5기 선정작가전
2020.11.19.-12.8.

발행인 이영훈

발행처 (재)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총괄 고동희 (문화사업본부장)

기획 김리원 (큐레이터)

지원 임정인(팀장), 고혜령, 성채은, 문화원, 임광택, 김길환, 임성순 (공연사업팀)

디자인 하형원

사진 방영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
T. 032-500-2000 F 032-506-9021 www.bpcf.or.kr

본 권은 <부평영아티스트> 전시를 위해 부평구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수록된 글과 도판은 부평구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